

대주제 지금 왜 보살을 말하나

-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60면

■ 제1주제 : 보살의 길

지안스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	A7면
이자랑 교수 '불전문학 속의 보살들'	A9면
정운스님 '역사 속 보살, 그들의 삶'	A10면
차차석 교수 '이 시대 보살을 말하다'	A11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 잘 모르는 보살 - 관세음보살이 여성화 된 까닭은...	A15면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스님	A19면
전채산 기부한 공양주 김순이 불자	A23면
세월호 참사 구호현장의 자원봉사자들	A28면
오늘 보살의 마음	A29면
불교미술로 보는 보살상	A32면
자원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35면

■ 제2주제 : 국민의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함께 모은 연등회

자유스님에게 듣는 부처님 오신 뜻	B3면
불교계 지도자들의 봉축사	B4~5면
사진으로 보는 불기2558년 연등회	B6~7면

■ 제3주제 : 산사에서 희망을 찾다

新산사시대	B8면
여기가 바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B10~11면
한일 산사의 특징	B13면
조계종 직역사찰 선암사를 가다	B14면
'이정희 산사스케치여행' 법주사 편	B15면
해국스님과 중국선종사찰 순례	B18~19면



산재사망률 세계 1위

노동위 '성명' 예방대책 촉구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장호스님)가 지난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위원회는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있으며 한국의 산재사망 비율이 세계 1위”라며 “사업주에 의해 은폐된 산재사망, 직업성 암, 호흡기 질환 등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사망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기업도, 정부도 국회도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법률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기업은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율을 최저의 사망률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재노동자들의 해유를 기원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내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입니다

봉축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친애하는 불자와 국민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자유와 대열반을 선언한 날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체 만물들에게도 대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선언하신 날입니다. 하늘은 축복을 노래하였고 땅은 진동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웠으며, 보이지 않던 것을 바로 보게 하였으며, 치우친 생각을 바르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였으며, 한 뿌리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내가 존중 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하고, 내 가족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내 얼굴인 이웃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큰 아

픔도 이겨내도록 이웃의 손을 함께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부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국민들 덕분에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씬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며,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없으면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앞에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나 바른 실천을 몰라주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런 사회는 미래가 밝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예의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하기 쉬운 나라,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상과 사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잘 살고자 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 할 때는 작은 일이라도 품앗이를 하는 나라, 짬이 생기면 문화예술로 쉬는 나라, 맛있는 음식은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이웃사촌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을 모두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여유로운 나라, 기회가 되는데도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객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영가분들이 어둠과 혼란에서 어서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우시겠지만 빛을 향하여 힘을 내시고 비통함과 원통함을 더 큰 마음으로 승화하시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서 빨리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부디 시간이 더디더라도 기운을 내시고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햇볕이 원만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58(2014)년 부처님오신날

전통등 전시회 외국 불자들도 세월호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연등회 참석차 방한...청계천서 노란리본 달아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9개국 스님과 불자들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초청으로 지난 4월24일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한 중국과 일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네팔,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스님과 불자, 종교 관련 공무원 등 19명은 4월25일 서울 청계천을 방문해 전통등전시회를 참관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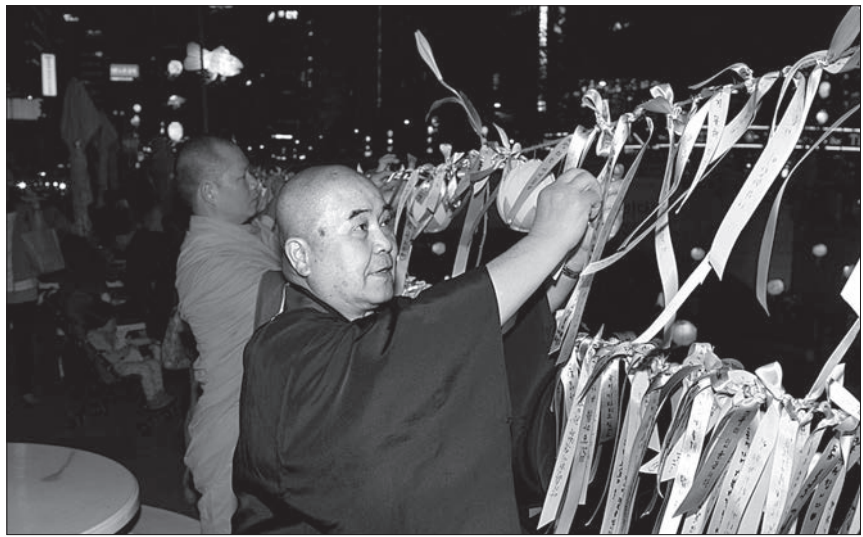
청계천 난간에 수만 개의 노란리본이 걸려 있는 가운데 외국 스님과 불자들은 노란리본에 각자 기원 문구를 적어 난간에 매달며 무사생환 기원행렬에 동참했다. 이어 한손에는 무사생환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노란색 꽃이나 흰색 꽃을, 다른 한손에는 촛불을 든 채 전통등이 전시돼

있는 청계천일대를 걸은 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합니다'라고 적힌 곳에서 각국의 전통 의식으로 무사생환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 상하이불교협회장 위예싱(魏醒)스님은 “지난 3월 발생한 말레이항공 실종사건 때처럼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통함을 느꼈다”면서 “실종자들이 부디 무사히 되돌아오고, 안타깝게 생을 마친 희생자들은 극락왕생하고, 한국 국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길 기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단협의 해외불교대표단 연등축제 초청행사 참가자들은 연등회 연등축제 참가를 비롯해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 참관, 서울 봉은사 참배, 경복궁 및 청와대 문화탐방,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연등회 참석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한 중국과 일본 등 9개국 스님과 불자들이 4월25일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전통등 전시회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무사생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진은 기원문구를 적은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운쇼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스님.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자비를...”

108산사순례기도회

동국대 '평화의불' 봉안

선묵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동국대에 평화의 불을 밝혔다.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묵스님)'는 지난 4월24일부터 25일

까지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원에서 '평화의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불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채화돼 티베트와 중국 대륙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지난해 남북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도 밝혔다.

선묵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부처님

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며 “정각원에 평화의 불을 분등하게 돼 기쁘다. 부처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환영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불기2558년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법인사무처장 정 인 국장 도 준

총 장 원 행

대 학 원 장
교 학 처 장
총 무 처 장
기 획 실 장
후원회사무처장
불교학연구부장
승가학연구부장

보 성 합 최
중 남 우
인 인
초 정 정

교학부장 최중남
국 장 선 우
국 장 세 립

국 장 법 은
연구부장 최태선
연구부장 김상영
연구원 도 은

총동문회장 범 해

사무처장 활 중 사무국장 묘 광

도 서 관 장
비구 수행관장
비구니 수행관장
불교사학 연구소장
불교사회복지 연구소장
불교사회과학 연구소장
비구니 연구소장
중앙승가대신문 주간

원 소
승 인
오 인
정 인
정 승
유 국
본 무
김 각
영 승
철 철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 국장 동준
자 비 복 지 타 윤 원장 묘전
장 애 아 동 시 설 원장 동준
성북 장 애 인 복지관 관장 현관
이천시장 애 인 복지관 원장 선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동욱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효진

교 직 원 일 동



www.sangha.ac.kr

415-768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풍무동)

☎ (031)980-7777, Fax (031)980-7778